

보도시점 2025. 8. 5.(화) 12:00
(2025. 8. 6.(수) 조간)

배포 2025. 8. 5.(화) 09: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청소년 과학자들, 한국에서 기후 해법을 함께 그린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청소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공동연구 및 경진대회, 8월 6일 개막
- 인재양성 정책 논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재양성 사례발표 연찬회(워크숍)’도 동시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미래세대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청소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공동연구 및 경진대회”를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STEM :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와 연관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네 가지를 통합한 교육 및 직업 분야

이번 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정 특화 센터인 과학영재멘토링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온라인 지도(멘토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올해 처음으로 경진대회 형식이 도입되었다. 대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서 4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청소년 온라인 지도(멘토링) 프로그램 :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역내 청소년들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연구 역량을 키우고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국적 팀을 구성해 세계적 지도자(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온라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이번 프로그램에는 14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에서 총 127명의 청소년이 다국적 팀(3인 1팀, 총 34개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6개월 간 온라인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청소년들은 각자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세계 각지의 전문가 지도자(멘토)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가로 성장한 프로그램 졸업생들이 청년 지도자(멘토)로 참여했으며,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연구자로서의 동기와 영감을 전달하였다.

올해 대회 주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 해법(STEM 솔루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번영과 연계를 위한 기후 회복력 강화 (Youth-led STEM Solution: Strengthening Climate Resilience for Prosperous and Connected APEC)’로,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기반 해법이 제시되었으며, 열대과일 껍질을 활용한 중금속 제거 기술, 인공 지능 기반의 홍수 예측 및 대응 체계, 맹그로브 생태계 평가를 위한 데이터 기반 모형, 감염병과 자연재해를 함께 감지하는 지능형 조기경보 체계(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 등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출발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연구 보고서로 구현되었다.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팀 10개 팀이 최종 경진대회에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이번 대회 당일 현장에서 발표 평가를 거쳐, 최우수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이외 우수팀에게는 경상남도 도지사상,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된 연구팀의 연구보고서는 향후 국제 공동논문 작업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회 기간 중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재양성 사례발표 연찬회도 함께 열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6개 회원국의 정부, 교육, 연구기관 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우수 인재양성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국제 공동연구를 직접 수행하며,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과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다자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허은영 (044-202-4360)
		담당자	사무관	장부권 (044-202-4362)
담당부서	APEC T/F	책임자	팀 장	박경미 (044-202-4680)
		담당자	사무관	신병철 (044-202-4682)
관련기관	APEC 과학영재멘토링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기호 (055-249-2024)
		담당자	연구원	김도영 (055-249-291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